

제13회 서울미래연극제 1차 서류심사 심사평

2023년 서울미래연극제에는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총 27팀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 '동 년도에 공연된 이력이 있는 작품은 지원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제출된 지원서와 대본 및 트리트먼트, 영상자료들을 연극계 각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개인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심사 참여자들의 평가를 수렴하여 1차 심사 합격팀을 선정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개별로 산출한 점수를 위시하였으나, 심사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수치화 평가 방식에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10팀의 1차 선정작이 추려졌습니다.

서울미래연극제의 심사에서 가장 주목하는 핵심 요건은 작품 및 참가팀이 '새로운 발상의 예술적 실험',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같은 참신하고도 발랄한 일탈을 보여주는 연극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작품이 시대적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연극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다소 보완할 부분이 있더라도 텍스트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지원작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셰익스피어, 입센, 카프카 등의 잘 알려진 작품의 번안을 통해 새로운 동시대적 해석을 제시한 작품과 로봇, AI, 멀티버스 등 SF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작품,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 관계, 소통과 관련된 실존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두 번째 언급한 일명 'SF 연극'은 지난 몇 년 동안 미래 연극제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소재인데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것과 동시에 '미래 연극제'라는 타이틀에 지워져 있는 일종의 인상이 작용한 듯 합니다. '서울미래연극제'는 연극 창작자들의 재기 넘치는 예술적 도전의 실현 무대입니다. 한국 연극이 다채로운 빛깔로 뻗어나가는 데 이 무대가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7월
심사위원 김일송, 신윤아, 전진모, 황이선